

“세계적 관광명소 발돋움”... 국가지질공원 등재 경합 치열

광주 무등산 주상절리대
부산·강원·경북 등 8곳
환경부, 연내 2곳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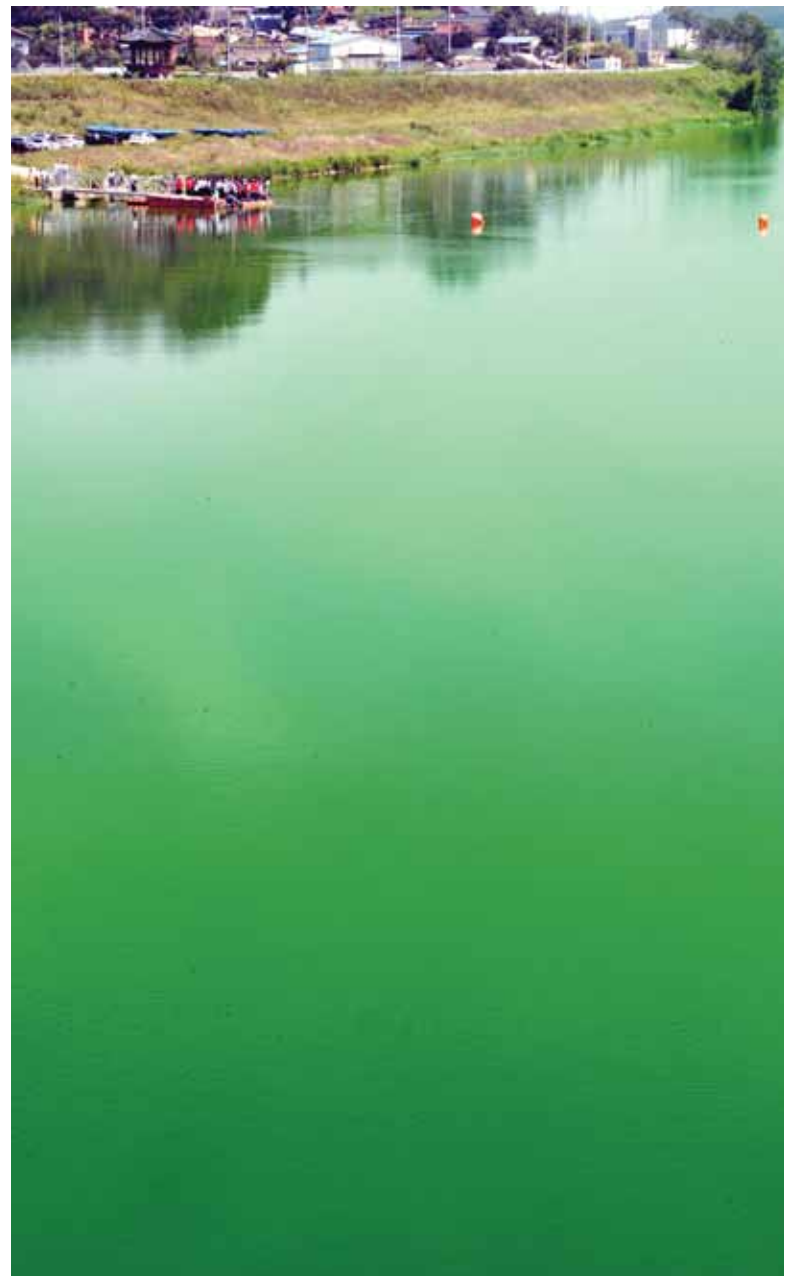
광주와 부산, 강원, 경북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국가지질공원 등재(인증)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지질공원이되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가능성도 높아져 전 세계인이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도 거듭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제주와 울릉도·독도에 이어 올 연말에 2곳 정도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중이다. 국가지질공원은 환경부가 지난 2011년 7월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보호를 최대 가치로 내건 다른 보호제도

와 달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광주 등 전국 각 자치단체들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전담하는 지질공원팀을 신설했다. 이들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에서 최고 절경을 자랑하는 주상절리대(사진) 중심으로 무

등산 일대를 국가·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지질공원팀은 1단계 사업으로 올 10월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하고, 통과되면 2014년부터 2·3 단계로 세계지질공원 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정 면적이 100km 이상으로 지질명소 10곳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는 무등산 국립공원(75.5km)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인근 담양과 화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광주 무등산과 부산 낙동강 하구 등 도시공원, 강원도 평화지역, 경북 청송 주왕산 일대 등이 꼽힌다. 이외에도 경기도

연천 현무암 협곡, 강원도 설악권역, 강원도 태백 등 영서지역, 경북 동해안 낙동정맥 등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중이다. 부산은 지난해 30일 정부에 도시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13일 현장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부산은 구상반려암과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불운대, 두송반도, 송도반도, 두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장산, 금정산, 백양산 등 12곳을 묶어 도시형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경북 청송은 주왕산 일대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추진하고, 조만간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시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은 “국가지질공원 승인 신청 대상인 무등산은 이미 국립공원 승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상태”라면서 “환경부가 요구하는 기준만 충족시킨다면 올해 안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숨막히는 영산강 녹조 20일 광주시 남구 승촌보 인근에 녹조가 퍼져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하다. 환경부의 지난 14일 조류 농도 모니터링 결과, 승촌보의 클로로필 a 농도는 55.1mg/m³, 남조류 개체수는 1650cells/ml에 이르러 수질예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다. ▶관련기사 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아차 오늘 부분파업... 광주공장 생산차질

노조 2년 연속 파업... 하루 500여대 100억원 손실

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결렬과 관련 21일 4시간의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기아차 노조는 20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급속노조 기아차 지부 사무실

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분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8면> 노조는 이날 하루 주간 1조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주간 2조는 오후 5시40분부터 7시40분까지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작업은 계속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부분파업 뒤 조만간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파업 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파업에 돌입한 이상 파업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임금협상안 및 별도 요구안에 대해 사측의 일괄제시안이 나오지

않아 쟁의에 들어간다”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부분파업에 들어가면 하루 2000여대의 생산량 가운데 500여대가 생산 차질을 빚게 되고, 금액으로는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게 된다. 앞서 전남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아차 임금협상 조정신청과 관련해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골자로, 20여개의 별도요구안

을 일괄제시로 내놨다. 별도 요구안에는 사내하청 정규직화, 상여금 800% (현 75%) 지급, 회사 순이익 30%의 성과급 요구, 조건없는 정년 연장, 주간 2교대제 시행에 따른 여가선용개선을 위한 기금 출연 건 등이 담겨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일 여름휴가 후에 가진 5차 본교섭에서 10분 만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으며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을 가결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파업으로 차량 2만2400대의 생산 차질을 겪으며 3380억 가량의 매출 손실을 봤다. /임동욱기자 exian@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 062)226-0001
Mercedes-Benz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위한 지중해가 펼쳐집니다!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위한 무료 맞춤형 역량진단 & 현장컨설팅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위해 KOTRA가 지금 달려갑니다.

- 서비스명 : 이동코트라 (지방 중소기업에 해외로)
- 서비스내용 :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수출컨설팅과 기업 방문상담
- 신청대상 : 수출관련 전문상담이 필요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 (수도권 포함)
- 신청방법

Step 1 서비스 신청 (KOTRA 홈페이지) Step 2 글로벌 역량진단 테스트 Step 3 기업정보 및 상담희망 내용등록 Step 4 최종 신청완료 및 기업방문

신청문의 본사총괄 : KOTRA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Tel. 02-3460-7103, 7431 • E-mail : kotrabus@kotra.or.kr
광주·전남북 : 호남권 KOTRA지원단 Tel. 062-369-905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tra.or.kr-지원사업안내-해외시장개척지원-이동코트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